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3.~2023.01.27
프로그램	2022 동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영어권의 교육방식이 궁금하였음. 또한 본인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제시한 비용을 학교에 송금한 뒤에, 차액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ETA) - 출발 일주일 전 신청/7달러(캐나다달러) 항공권 - 11월 경 직항 왕복 티켓 구매 여행자 보험 - 출발 2~3일 전 보험 신청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 140달러(캐나다달러)로 최소 금액만 환전, 그 외 신용카드 이용 개인 준비물 - 여행용 드라이기, 고데기, 구급상비약, 홈스테이에서 별도로 준비해가야 하는 것들(수건, 샤워 용품 등), 태블릿 PC, 노트북, 필기도구 등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밴쿠버 캠퍼스로, 본 캠퍼스는 버너비에 위치해있음. 어학센터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해있음.	
	교육 시설	어학 센터에서는 어학 수업 외에 신문방송학과 등의 수업도 진행함. 여러 교실들이 있었음.	
	기숙사 시설	X(홈스테이로 대체)	
	편의 시설	도서관, 정보실(컴퓨터실), 각 층별 배치된 정수기, Student Lounge, 지하에 위치한 푸드코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였음.	
	기타 정보	따로 캠퍼스 안에 학식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센터 근처에서 각자 해결해야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이용됨. 버스가 많고,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지상철과 Seabus가 있어 통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음. compass card를 이용하여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탈 수 있는데, 30일 패스는 한화 약 10만원 정도로 한국 대학 통학 비용과 비슷했음.
	식사 여건 및 비용	센터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었고, 센터 밖에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아 식사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음. 한 끼가 한화 약 2만원 정도이고, 팁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 데에 부담이 있었음.
	관광지 정보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가스타운과 캐나다플레이스가 있었고, 다운타운 기준으로 30분 정도 버스를 타면 스탠리 공원 등이 있어 돌아다닐 만한 곳이 많았음. 다운타운에는 룩슨 스트리트가 있어 쇼핑하기에 적합했음.
	기타 정보	홈리스가 많은 거리가 있어 걸어갈 때 조심해야 함.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9시~1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3교시(1교시 당 100분)으로 진행됨. Listening Practice, Oral Skills, Composition, Literature, News Media, Canadian Studies 등의 강의를 있음.
	교육 내용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등의 기본적인 영어 스킬들과 관련된 수업들과 캐나다와 관련한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
	강사진	모두 Candians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계통의 강사들이 있었음, 여자/남자 강사들이 골고루 있었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수업 후에 방과후 활동으로 Conversation Club이나, 외부로 이동하는 활동 등이 있었음(아이스링크장(스케이트 타기), 그랜빌 아일랜드 탐방, 박물관 탐방 등), 매주 금요일마다 캐나다와 관련한 박물관을 갔었음. (역사 박물관 등)
	기타 정보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Student-Centered 형식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음. 조별 활동과 발표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됨.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임.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매주 금요일 Academic Field Work로 밴쿠버에 위치한 다양한 박물관(역사, 경찰 박물관 등)을 탐방함. 방과후 활동으로 밴쿠버 관광지를 가보기도 하였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액티비티 활동의 경우 한화 약 1~2만원 내외로 비용이 들어갔음. 그 외 자유시간에는 관광지를 가보거나 쇼핑을 하였음.
	기타 정보	X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프로그램 진행 후에 Speaking이 전보다 좋아졌음. 특히 말할 때 자신감이 생겨나서 더욱 말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졌음. 또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프로그램 장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쉬운 수업이 많아서 뒤로 갈수록 지루해짐. 홈스테이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보임.(좋은 곳도 있지만, 위생 측면에서 안 좋은 곳도 있었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캐나다는 수돗물을 식수로 먹는 것이 가능함. 홈스테이의 위치에 따라 학교까지 가는 데에 사용하는 Compass card의 비용이 달라짐. 프로그램 시작 전 홈스테이 선호 조사를 실시하지만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직접 가야 알 수 있음.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주택임.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홈스테이 주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무작정 프로그램에 가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짐. 말하는 것이 서투르고 어색해도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프로그램 시작 전, 후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3.~2023.01.27
프로그램	2022 동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영어권의 교육방식이 궁금하였음. 또한 본인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제시한 비용을 학교에 송금한 뒤에, 차액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ETA) - 출발 일주일 전 신청/7달러(캐나다달러) 항공권 - 11월 경 직항 왕복 티켓 구매 여행자 보험 - 출발 2~3일 전 보험 신청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 140달러(캐나다달러)로 최소 금액만 환전, 그 외 신용카드 이용 개인 준비물 - 여행용 드라이기, 고데기, 구급상비약, 홈스테이에서 별도로 준비해가야 하는 것들(수건, 샤워 용품 등), 태블릿 PC, 노트북, 필기도구 등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밴쿠버 캠퍼스로, 본 캠퍼스는 버너비에 위치해있음. 어학센터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해있음.	
	교육 시설	어학 센터에서는 어학 수업 외에 신문방송학과 등의 수업도 진행함. 여러 교실들이 있었음.	
	기숙사 시설	X(홈스테이로 대체)	
	편의 시설	도서관, 정보실(컴퓨터실), 각 층별 배치된 정수기, Student Lounge, 지하에 위치한 푸드코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였음.	
	기타 정보	따로 캠퍼스 안에 학식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센터 근처에서 각자 해결해야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대중교통이 활발하게 이용됨. 버스가 많고,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지상철과 Seabus가 있어 통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음. compass card를 이용하여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탈 수 있는데, 30일 패스는 한화 약 10만원 정도로 한국 대학 통학 비용과 비슷했음.
	식사 여건 및 비용	센터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었고, 센터 밖에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아 식사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음. 한 끼가 한화 약 2만원 정도이고, 팁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 데에 부담이 있었음.
	관광지 정보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가스타운과 캐나다플레이스가 있었고, 다운타운 기준으로 30분 정도 버스를 타면 스탠리 공원 등이 있어 돌아다닐 만한 곳이 많았음. 다운타운에는 룩슨 스트리트가 있어 쇼핑하기에 적합했음.
	기타 정보	홈리스가 많은 거리가 있어 걸어갈 때 조심해야 함.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9시~1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3교시(1교시 당 100분)으로 진행됨. Listening Practice, Oral Skills, Composition, Literature, News Media, Canadian Studies 등의 강의를 있음.
	교육 내용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등의 기본적인 영어 스킬들과 관련된 수업들과 캐나다와 관련한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
	강사진	모두 Candians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계통의 강사들이 있었음, 여자/남자 강사들이 골고루 있었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수업 후에 방과후 활동으로 Conversation Club이나, 외부로 이동하는 활동 등이 있었음(아이스링크장(스케이트 타기), 그랜빌 아일랜드 탐방, 박물관 탐방 등), 매주 금요일마다 캐나다와 관련한 박물관을 갔었음. (역사 박물관 등)
	기타 정보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Student-Centered 형식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음. 조별 활동과 발표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됨.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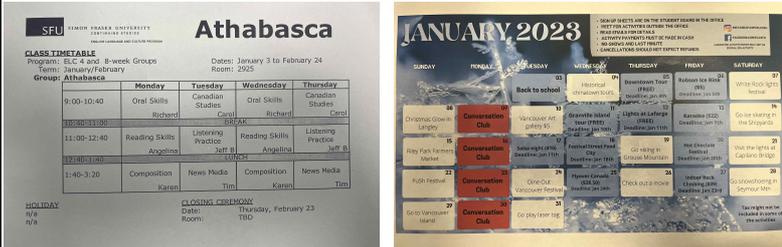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매주 금요일 Academic Field Work로 밴쿠버에 위치한 다양한 박물관(역사, 경찰 박물관 등)을 탐방함. 방과후 활동으로 밴쿠버 관광지를 가보기도 하였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액티비티 활동의 경우 한화 약 1~2만원 내외로 비용이 들어갔음. 그 외 자유시간에는 관광지를 가보거나 쇼핑을 하였음.
	기타 정보	X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프로그램 진행 후에 Speaking이 전보다 좋아졌음. 특히 말할 때 자신감이 생겨나서 더욱 말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졌음. 또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프로그램 장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쉬운 수업이 많아서 뒤로 갈수록 지루해짐. 홈스테이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보임.(좋은 곳도 있지만, 위생 측면에서 안 좋은 곳도 있었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캐나다는 수돗물을 식수로 먹는 것이 가능함. 홈스테이의 위치에 따라 학교까지 가는 데에 사용하는 Compass card의 비용이 달라짐. 프로그램 시작 전 홈스테이 선호 조사를 실시하지만 좋은 곳인지 아닌지는 직접 가야 알 수 있음. 대부분의 홈스테이는 주택임.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홈스테이 주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무작정 프로그램에 가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짐. 말하는 것이 서투르고 어색해도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함. 프로그램 시작 전, 후로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3.~2023.01.27.
프로그램	ELC 4-week Intensive Program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타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신청 서류에 학과장님 서명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선발 이후 연수비 납부는 상명대학교 측 계좌로 납부하였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였다. 여행자 보험은 파견 대학 일정에 맞추어 가입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미리 60(CAD)달러 정도 환전을 해두고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준비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 신발, 화장품, 욕실용품 등 챙겼으며 밴쿠버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밴쿠버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했고, 학생 및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교육 시설	2층에 위치한 각 강의실이 잘 분리되어 있으며 1층에는 넓은 강당 공간, 도서관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 여러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았다. 또한, 깨끗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기숙사 시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음	
	편의 시설	건물 내 여러 식당, 카페, 상점, 휴게실이 위치해 있으며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또한, 1층 복도에는 보안실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나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없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compass card(컴패스 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하며 상점이나 역에서 compass card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다. 카드는 6달러, 충전은 한달 무제한권 monthly pass 2존으로 이용하여 125달러를 지불하였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홈스테이에서 매일(월-일) 아침과 저녁만을 준비해주시며 점심은 학교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또한, 저녁을 밖에서 먹는 경우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미리 홈스테이 주인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 당시 현지 물가를 반영하여 한 끼 식사에 대략 16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관광지 정보	밴쿠버 내외로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밴쿠버 내에는 Grouse Mountain,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Stanley Park, Granville Island, English Bay Beach, Kitsilano Beach, Sunset Beach 등이 있으며 그 외로는 빅토리아, 휘슬러, 시애틀 등을 여행하기 좋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없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English Language and Cultrue Program(ELC)으로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된다. 1.Canadian Studies 2.Composition 3.Listening Practice 4.News Media 5.Oral Skills 6.Reading Skills 강의를 각 클래스 시간표대로 짜여져 있으며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교육 내용	기본적인 영어 문법과 어휘를 배울 수 있었으며 캐나다 문화권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듣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의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강사진	1.Canadian Studies - Carol 2.Composition - Karen 3.Listening Practice - Jaff B 4.News Media - Tim 5.Oral Skills - Richard 6.Reading Skills - Angelina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매주 금요일마다 09:00~12:00: Academic Filed Work 활동을 한다. 또한, 매일 방과후 활동으로 activity가 구성되어 있다. 무료/유료의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 미리 신청하면 된다.(활동 예; 스케이트, 볼링 등 기타 사진정보 참고)
	기타 정보	 <p>The image shows two documents. On the left is a 'CLASS TIMETABLE' for Athabasca, January 3 to February 24, 2023. It lists classes for Monday through Thursday, including Oral Skills, Canadian Studies, Reading Skills, Listening Practice, Composition, and News Media. On the right is a 'JANUARY 2023' calendar with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marked for each day, such as 'Conversation Day', 'Back to school', 'Winterfest', and 'New Year's Eve'.</p>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London Drugs 상점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와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버스, 배, 비행기가 있으며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동 경로를 미리 알아보면 좋다.
	기타 정보	어학연수 종료 이후 따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항공편과 숙소 정보를 알아보고 예약해 두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SFU 영어 과정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며 기본적인 스피킹과 어휘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타문화를 가진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와 현지인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장점	홈스테이, 교육기관, 해당 문화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으며 학교와 연계된 홈스테이, 교육기관이기에 더욱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개선 요구 사항 없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없음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한 달이라는 과정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 쉽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말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표를 언어 및 해당 문화권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알찬 어학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2. 01.02~2022.01.28
프로그램	22 동계 SFU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새로운 문화경험과 영어공부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등록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캐나다 여행비자, 에어캐나다 왕복 항공권 구매, 여행자보험을 가입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캐나다 달러 환전, 개인 준비물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교육 시설	SFU 대학교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함.	
	기숙사 시설	기숙사 없음	
	편의 시설	x	
	기타 정보	x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먼슬리패스 1달 교통카드를 사용.
	식사 여건 및 비용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점심을 사 먹음 아침과 저녁은 홈스테이 제공으로 생각보다 많은 돈은 들지 않음.
	관광지 정보	벤쿠버 다운타운, 노스벤쿠버등등 많이 위치함.
	기타 정보	x
교육 정보	강의 구성	하루를 3교시로 나누어 한 수업 당 100분을 진행. 매 시간 다른 교수님으로 다른 내용을 학습 함.
	교육 내용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말하기 읽기 스킬, 문법 단어 향상
	강사진	Jeff, Richard, Carol Judy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엑티비티 현장학습
	기타 정보	X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X
	기타 정보	X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로 나 자신을 소개하고 타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음. 문법과 단어 실력이 향상됨.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보다도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서 좋았다.
	프로그램 장점	새로운 문화의 경험과 각국의 친구들과 지내고 공부하는 것이 흥미로웠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엑티비티 활동이 보다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X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나에게는 새롭고 쉽게 하기 힘든 좋은 경험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한다.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알아가는 재미와 값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2.~2023.01.28.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and Cultrue Program(ELC)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회화 실력 향상, 캐나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연수비, 홈스테이 총 비용 대략 400만원 결제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 비자 : eta 여행 비자를 2022년 12월 둘째 주 무렵 발급받음. 발급비용 7달러(캐나다달러) - 항공권 : 11월 무렵 항공권 구매. 직항 왕복 약 235만원 - 여행자 보험 : 12월 무렵 LG u+ 통신사 로밍센터와 연계된 여행자보험제휴 이벤트로 db손해보험 가입 약 17000원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 환전 : 약 10만원 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 방과후 체험 참여할 때만 캠퍼스에 현금 지불하고 이외에는 현금 쓸 일 없음. 현금이 필요없는 문화. - 준비물 : 겨울일 경우 우산, 장화 가져갔는데 유용했음. 매일 비가 오지만 우산을 파는 곳이 거의 없음. 텀블러 있으면 정수기에서 물 마시기 유용함. 생리대 가지고 오길 추천함. 홈스테이에서 사용할 실내용 슬리퍼.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https://www.sfu.ca/elc.html 관광 중심지인 다운타운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등 교통 이용 매우 편리함 대학 본교가 아닌 따로 떨어진 캠퍼스에서 진행
	교육 시설	쾌적하고 넓은 시설. 교실 안에 책상은 U자 형태로 한 교실에 15명정도 수용.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 거주. 한국인이 아닌 여성 룸메이트 2명~3명 있었음. 2층 주택에 개인 방, 화장실(욕실)은 공용이었음. 아침(시리얼, 오트밀, 바나나, 요거트, 베이글, 식빵), 저녁 식사(파스타, 구운 치킨, 볶음밥 등) 제공
	편의 시설	3층정도이고 1층에 카페, 도서관, 매점 등 있음. 외부인 출입을 막지 않으므로 외부인과 함께 건물을 사용함. 3층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식탁, 테이블 등 있어서 점심을 여기서 자주 해결함.
	기타 정보	영미권 학생과 접할 일이 많지 않아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홈스테이 룸메이트, 강사진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를 추천함. transit보다 구글맵이 유용했고 우버보다 리프트가 저렴함. 유심을 바꿔 낀 후 본인의 캐나다 번호를 숙지해두는 것이 어플, 교통카드 등록 등에 유용함. 입국심사에서 자세한 질문 전에는 우선 여행이 목적이라고 말해야 함. 여행비자를 받았기 때문.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홈스테이에서 집까지 버스 1번, 캐나다라인(지상철) 1번 타고 총 40~45분 소요 한달짜리 무제한 교통카드 구매 약 110캐나다달러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있어 편리함. 다만 9시~10시 무렵 시간표가 유동적이거나 아예 캐나다라인(지상,지하철)이 이른 시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구글맵의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함.
	식사 여건 및 비용	푸드코트 있고 한끼당 대략 12~13달러로 학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 점심을 주로 집에서 싸감. 밥을 싸주는 홈스테이도 있지만 주로 알아서 점심을 준비해옴.
	관광지 정보	- 휘슬러 여행 당일치기 : 관광버스 타고 2시간 걸림 - 다운타운 구경 - 시애틀 여행 : 1박 2일로 미국 비자 받아서 버스 5시간 타고 갈 수 있음 - 빅토리아 여행 : 1박 2일 배타고 다녀올 수 있음. - 덤코브, 그랜빌아일랜드 등
	기타 정보	- 트래블월렛 등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발급받아오면 용이함. (현금 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직접 서빙해주는 경우 팁을 카드 기계에서 직접 선택하여 낼 수 있음. 현금으로 낼 일은 거의 없음 (15~20%) - 술집에서 한국 주민등록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시해야 함. 여권사본이나 사진은 안됨. - 담배, 술을 구매할 때에도 마찬가지. - 학교 근처 london drugs, 달러라마 등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 (학교 근처에는 없지만 wall mart가 가장 저렴했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월~목 매일 3개의 수업을 들음. 직접 선택할 수 없음. 아침 9시 시작, 오후 3시 반쯤 끝남.
	교육 내용	English Language and Cultrue Program(ELC) 1.Canadian Studies : 캐나다 문화 수업 2.Composition : 작문 수업 (영어 문법 위주) 3.Listening Practice 4.News Media : 세계 뉴스 미디어 자료 참조한 영어 수업 5.Oral Skills : 말하기, 발음 수업 6.Reading Skills 7. 금요일마다 필드트립(박물관 등) 놀러감
	강사진	수업마다 다른 강사가 들어옴. 친절하고 호의적인 분위기이며 주로 숙제가 있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방과후 액티비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무료/유료 모두 존재, 볼링, 스케이트, 가라오케 등) 금요일 필드트립 참여 필수 (무료, 아침 9시 학교에서 출발)
	기타 정보	노트북이나 태블릿 패드 있어야 수업 참여가 용이함. 학교 이캠퍼스를 자주 활용하기 때문.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연수동안 총 300만원 정도 씬 (연수비, 홈스테이비, 항공권 제외) 주마다 대략 500달러씩 썼으나 본인은 여행 등에 돈을 많이 쓴 편.
	기타 정보	28일 연수 종료이지만 3~4일에서 1주정도 돌아오는 항공편을 늦춰 구매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토론토, 밴프,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을 여행하고 오기도 함.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 밴쿠버 환전소를 이용하여 캐나다달러를 미국달러로 쉽게 환전할 수 있음.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외국인과의 영어회화에 자신감이 생김 해외에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김 일본인, 중국인 등 친구들이 생김
	프로그램 장점	다양한 선생님을 통해 여러 수업 방식을 접해볼 수 있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음 방과후 시간, 주말을 활용하기 용이함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4주반 학생과 8주반 학생이 함께 같은 커리큘럼의 수업을 들으므로 4주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에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음 필드트립 장소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 홈스테이에 드라이기, 두루마리 휴지, 수건, 샴푸, 린스 등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홈스테이 문화 : 화장실을 건식으로 사용하므로 세면대는 사용 후 주변을 항상 닦아놓아야 함. 수돗물을 마시는 문화이나 본인의 경우 정수 기계가 있었음. 다른 룸메이트를 배려해 10분 내외로 씻어야 함.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 옷을 포함한 짐을 최대한 적게 들고 오기를 추천함. 기념품 등을 사들고 집에 갈 때 힘들기 때문 - 트래블월렛 카드를 추천함. 비상 카드를 들고오긴 했지만 트래블 월렛으로 모두 결제 가능했음 -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비가 오는 겨울보다 여름을 추천함. - 짐이 바뀌지 않도록 캐리어에 눈에 띄는 표식을 할 것.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3~28
프로그램	동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외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외국에 나가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도 컸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등록은 정해진 매뉴얼 대로 서류 작성 및 일괄적으로 학교에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와 항공권, 여행자 보험은 개인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했다. 학교에서 처리해주는 것은 홈스테이와 학교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였다.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상당히 복잡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한화로 약 100만원 정도로 했다. 준비물의 경우 겨울 옷과 필기구, 그리고 비가 자주 와서 우산을 꼭 챙겨야 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대학교보다는 어학원의 느낌이 강한 곳이라 대학 정규 수업을 듣는다고보다는 타국 학생들과 같이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 시설	시설은 깔끔했고 편리했다.	
	기숙사 시설	내가 묵은 홈스테이의 시설은 무척 좋았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지냈다.	
	편의 시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편의 시설이 잘 되어있다. 인구 수가 많고 대도시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기타 정보	물가가 많이 비싸다. 겨울철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가 빨리 저서 아쉬웠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캐나다의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 점심거리를 사서 학교 갈 때 만들어 갔다. 홈스테이에서의 식사는 만족스러웠다.
	관광지 정보	밴쿠버 자체에는 관광거리가 다양하지 않다. 때문에 밴쿠버에서 관광지를 다 가봤다 생각이 든다면 좀 더 멀리 위치한 관광지를 가는 것도 추천한다.
	기타 정보	밴쿠버는 특히나 내가 있던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왔고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졌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강의는 듣기, 문법, 말하기, 캐나다 문화, 뉴스 미디어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 3개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수업이 1시간 40분 정도로 상당히 길다.
	교육 내용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도 있었고 캐나다 와서 새롭게 배운 내용도 있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강사진	강사분들은 우리를 많이 배려해주셨다. 자주 쓰는 축약어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발음하셨고 괜찮으니 언제든지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하라고 하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정규 수업 이외에는 금요일날 견학 수업이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견학을 가는 것인데 강사분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주셔서 더 수월한 이해가 가능했다.
	기타 정보	영어를 배우러 온 타국 학생들도 있었는데 별로 다양하지 않아서 그 점이 아쉬웠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금요일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필드 트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기타 정보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많은 외국인을 접했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러 경험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겁을 먹지 않게 되었다. 느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 장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왜 좋은 지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영어인 세상에 들어가다보니 서툴더라도 영어를 무조건적으로 쓸 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점차 영어가 익숙해졌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홈스테이에서 점심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캐나다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오신다면 우산을 꼭 준비해주시고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이 점 고려해주시고 가능한 주말에는 집에 있지 마시고 최대한 나가서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3.01.02-23.01.27
프로그램	2022 동계 단기 어학연수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목표로 하는 직무가 무역 쪽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어권 국가에서 회화를 해보고,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실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자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등록과 결제 과정은 학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한 내로 협조만 하면 되어 편리했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캐나다 외에 다른 영어권 국가도 있었는데 장시간 비행과 경유 항공편에 부담이 있어 직항이 있고 비교적 짧은 비행의 캐나다를 선택함. 비자나 보험은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았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캐나다에선 현금을 거의 안 쓴다는 정보를 들어서 소액만 준비해서 갔는데도 남았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였고, 한국의 겨울을 생각하고 짐을 썼는데 프로그램 기간 내내 더웠음.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 나았을 듯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SFU라고 줄여 부르며 밴쿠버 내에 캠퍼스가 여럿 있고 다운타운에 있는 외국인 프로그램 전용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음. 버나비에 있는 본캠에서 수업을 듣는 줄 알고 조금 실망했었는데 방과후 활동이나 주변 관광지, 홈에서 학교까지의 대중교통 등을 생각했을 때 다운타운 캠퍼스라서 훨씬 편리했던 것 같음.	
	교육 시설	12-20명 정도로 반이 구성되는데, 강의실이 교수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구조임. 칠판이 여러 개 있고,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의 조명 모드가 따로 있어 집중해야 하는 곳이 잘 보임. 복도가 넓고 여유 공간이 많아 곳곳에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많음.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수업이라 대화 소리가 자주 겹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공간들이었음.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에서 거주함.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고 샤워 시간도 제한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음. 아침과 저녁이 일정한 시간에 제공되고 점심도 문의하니 제공해주심. 첫 날엔 동행하여 교통카드 사용법과 학교 가는 길을 안내해주셨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친절했음. 침대가 오래 되어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는 것 외엔 만족함.	
	편의 시설	캠퍼스가 있는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임. 1층 로비는 통창이고, 학교에 도서관, IT 지원실, 보건실, 지하에는 푸드코트가 있음. 학생 휴게실이 있어 점심 먹을 때 사용하기 편리함.	
	기타 정보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가 많고 바로 앞에 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편이 굉장히 좋음. 주변에 관광지가 많고 버스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들임.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compass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다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 한 달 이용권은 약 10만 원인데, 매일 통학하고 주변 관광지 다니는 것까지 생각하면 충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절약적임. 도로에 차는 많지만 오토바이가 없고, 웬만하면 버스 정차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쾌적함.
	식사 여건 및 비용	물가가 높은 편임.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세븐일레븐 정도고 매장도 많지 않음. 한국에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 해결이 가능하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고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 기본 2만 원, 서빙을 받으면 팁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종종 나오곤 함.
	관광지 정보	해변이 굉장히 많고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그것 말고는 볼 것도 다닐 곳도 없음. 박물관이 몇 개 있는데 두 시간 내외로 다 돌아볼 수 있는 곳이고, 자연 구경밖에 할 게 없음. Deep Cove나 Lynn Canyon 등 다운타운 근교의 관광지가 있긴 하지만 왕복 두 시간 정도 걸림. 차라리 근처 도시인 빅토리아나 밴프 혹은 미국의 시애틀에 가는 게 낫지만 최소 1박은 하는 일정을 잡아야 함.
	기타 정보	수업이 4시쯤 끝나는데 해가 4시 반쯤 지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짐. 다운타운 거리에 노숙자가 심심찮게 보임. 주택가에는 거의 없지만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운 범위가 넓음.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일찍 집에 들어갈 것을 권고함. 30일 중 25일이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데 우산을 쓰긴 애매하면서도 안 쓰면 불편한 날씨라 돌아다니기 부담스러움.
교육 정보	강의 구성	문법과 단어 학습, 회화와 작문, 발표로 구성되어 있음.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고 대부분의 강이가 파트너와 의견을 나누거나 그룹을 짜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임.
	교육 내용	캐나다의 문화 학습, 시 해석과 요약, 미디어 선정과 영상 분석, 자기소개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과정을 나열 및 작성, 발명품 소개와 발표.
	강사진	모든 교수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수업하심. 말을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하시고 시청각 자료와 칠판을 주로 활용하시며 개인 수업자료도 많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았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마다 수업 대신 현장학습을 감. 유명한 관광지 혹은 박물관 위주로 방문하고 12시 내외로 종료됨.
	기타 정보	첫 날 테스트를 보고 수준별로 반을 구성하여 정규 수업에 들어감. 일본인과 중국인이 주로 있고, 대만, 아랍 등의 학생들도 있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주로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저녁을 먹거나 관광지를 다니는 정도의 활동을 함. 식비나 기념품을 사는데 든 비용을 제외하면 돈 나갈 곳이 없음.
	기타 정보	구글맵스랑 교통카드만 있으면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음. 버스가 지연되거나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moovit을 깔아서 버스 시간을 보고 움직여야 함. 택시는 uber보다 lyft가 좀 더 저렴함.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실력적인 면에서 성과라고 할 건 크게 없는 것 같음. 회화를 아예 못하는 수준에서 참가했다면 어느 정도의 문장은 구사할 수 있었을 것 같음. 다만 타국의 문화, 유래, 역사 등의 지식과 현지 생활 방식, 한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점 등 내가 느낀 감정과 경험했던 것들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프로그램 장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임. 프로그램 특성상 당연한 점이지만 서구권 사람들만 구성되어 수업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음.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일본어를 한 시간이 더 많았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딱히 없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항임. 한국의 경우 지하철은 노약자석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지하철은 한국의 버스와 같다고 생각하면 됨. 특정 구역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모두가 앉을 수 있음.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이 탑승하면 무조건 비켜줘야 함. 모른 척 앉아 있다가 지적 받고 비켜주는 사례를 본 적 있음. 버스의 앞 구역은 접이식 의자를 내려서 앉는 방식인데,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오면 모두가 비켜줘야 함. 의자를 올려 그 구역에 바퀴를 고정하면 버스가 출발하며, 타고 내리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버스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 어제 밤에 봤던 루트가 다음 날 아침에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잘 체크해야 함. 교통카드는 탈 때만 찍으면 됨.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다운타운 구경은 수업 끝나고 매일 할 수 있음.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은 무조건 밴쿠버 근교로 나가는 것을 추천함. 빅토리아, 휘슬러, 밴프를 많이 가는데 시애틀이나 토론토에 가보는 것도 추천함.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2.~01.27
프로그램	23 동계 어학연수 (English and Culture program)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위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공지글을 보았고, 평소 해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다. 관계자분의 연락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았고 정해진 기간 안으로 프로그램 참가 비용을 입금하여 결제하였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eta(전자여행비자)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항공권은 온라인 투어 사이트에서 진행하였으며 직항으로 결제하였다. 가격은 왕복 260만원이었다. 여행자 보험은 네이버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와있는 것으로 선택하였으며 1달 보험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안내해주는 보험도 함께 가입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하나은행을 통하여 50만원을 캐나다 달러로 가져갔으며, 대부분의 결제는 마스터 카드로 하였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으로 수업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시설	<p>다운타운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다. (역 1분 거리) 교육 시설이 쾌적하고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도 잘 되어있었다.</p>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를 이용하였다.
	편의 시설	학교 센터 지하에는 매점, 기념품샵, 카페 및 푸드코트가 많이 있어 편리하다. 학생 휴게실이나 휴식 공간 또한 잘 구비되어 있다.
	기타 정보	중심가에 있는 하버 센터에 교육 시설이 있는 다목적 건물로 교육시설 외에도 편의 및 상업 공간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였다.

지역·생활
정보

<p>교통 여건 및 비용</p>	<p>홈스테이는 학교가 위치한 밴쿠버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약 45분 거리의 버너비에 위치해 있었다.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전철을 이용하였으며 compass card(교통카드) 1달치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가격은 10만원대였다. compass 카드로 버스와 스카이 트레인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p>   <p><학교에서 보이는 waterfront역</p>
<p>식사 여건 및 비용</p>	<p>대부분의 한끼 식사가 1만원 초반에서부터 2만원 중반으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었다. 매일 점심을 사먹기에는 부담이 되어 홈스테이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간편식을 주로 먹었다. 팀홀튼이라는 캐나다 브랜드의 저렴한 샌드위치나 빵 등을 자주 사먹었다.</p>
<p>관광지 정보</p>	<p>평일에는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관광지에 갈 시간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스탠리파크, 엘리자베스공원, 잉글리시베이 등 학교에서 몇십분 가량 걸리는 공원 등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주말을 이용하여 딥코브, 린 캐니언 파크, 빅토리아, 밴프 등과 미국 시애틀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관광지 사진 마지막 페이지 첨부)</p>
<p>기타 정보</p>	<p>마약이나 노숙자 문제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국보다 빨리 어두워지며 가로등이 덜 설치되어 있다.</p>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작문, 문학, 스피킹, 뉴스미디어, 캐네디언 스테디, 리스닝 총 6개의 강의과 필드트립으로 이루어져있다. 하루에 3과목씩 수업한다.
	교육 내용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요구한다. 작문 : 기초 영문법을 배우며 이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문학 : 영미 문학을 배우고 문학적인 영문 표현을 배울 수 있다. 스피킹 :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이다. 뉴스미디어 : 세계 뉴스를 시청 및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캐네디언 스테디 : 캐나다의 문화 및 역사,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다. 리스닝 : 영어 발음 연습 및 영어 영상을 시청하는 수업. 자막 없이 듣기roman 영상을 시청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수업한다.
	강사진	한 과목당 하나의 강사진이 배정되어 있으며 모든 강사진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매주 금요일은 필드트립 데일로 밴쿠버 미술관, 경찰 박물관, 그랜빌 아일랜드 등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견학한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견학 행사를 진행하여 별도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정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학생이며 드물게 유럽, 중동 학생들이 있었다. 수준별 학습으로 이뤄지며 첫날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 개인 활동보다 팀으로 활동하는 수업이 많았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홈스테이 가정과 스케이트를 타거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홈스테이 가정에는 본인 외에도 이탈리아인 고등학생이 미리 거주하고 있었다. 아침은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준비해 먹고 저녁식사는 가족들과 함께했다.
	기타 정보	왓츠앱이라는 해외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캐나다 현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p>단기 연수였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못했지만 어학 공부에 대한 의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p> <p>혼자서도 해외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경험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p> <p>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p>
	프로그램 장점	<p>해외에서 외국어로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p> <p>한국과 달리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요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p> <p>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학 학우들이 있어서 좋았다.</p>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p>자유 시간이 의외로 부족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는 연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p>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p>캐나다는 다양한 이민자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다문화 국가이다.</p> <p>서양인보다 인도, 중국, 중동 등 아시안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고 홈스테이 또한 대부분이 이민자 호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p>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p>수업이 3시 20분에 끝나고 겨울엔 5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평일에는 자유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주말을 활용하여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p> <p>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밴쿠버의 다문화적인 특성상 외국인들을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만 있으면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p> <p>캐나다도 한국만큼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환전보다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3.01.02.~2023.01.28.
프로그램	ELC Full-Time Four-Week Program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p> 대학에 가면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다.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높이고 싶었다.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보던 중, ‘글로벌’ 공지사항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장점이 있었다. 그 중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휴학을 하지 않아도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점까지 인정해 준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p> <p>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국가의 목록에는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일본이 있었다. 호주는 계절이 반대에 낫설다는 점, 일본은 영어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중 캐나다의 학교는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홈스테이 생활을 하여, 좀 더 캐나다 여행에 자유로울 것 같아서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에 지원하게 되었다. </p>
---------------	---

	<p>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p>	<p>프로그램 비용으로는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이 있었다. 이 둘은 상명대학교 담당 교직원 분의 안내에 따라 계좌로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을 같이 원화로 송금하였다. 그 후 환율에 의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환급받았다. 현지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의 프로그램 결제 과정에 대해 들어봤는데, 각자 홈스테이 비용과 학비를 따로 직접 결제했다고 하여, 우리 학교의 결제 방식이 간편하다는 것을 느꼈다.</p> <p>또한 프로그램 등록을 위하여 우리 학교에 여권 사본과 백신 정보, 개인 정보들을 제출하고, 외부 담당자분께도 백신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홈스테이 거주에 필요한 정보들을 캐나다 학교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간편하였다.</p>
<p>프로그램 준비 과정</p>	<p>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p>	<p>비자는 이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외부 담당자분께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다. eTA 캐나다 비자 발급 사이트에서 나에게 알맞은 비자를 선택하고, 여권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주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일주일이라고 하였으나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p> <p>항공권은 각자 결제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에 처음 가고, 성인이 되어 혼자 나가는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변수 발생을 줄이고자 직항 노선을 택하였다.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 중 에어캐나다가 현지 항공사이기도 하고, 가격도 대한항공보다 저렴하여 에어캐나다를 이용하였다.</p> <p>여행자 보험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사설 보험 총 두 가지를 들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셔서 한 달에 6만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었다. 국내 사설 보험은 부모님께서 해주셨다.</p>
	<p>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p>	<p>환전은 주거래 은행에서 하였다. 1,000 캐나다 달러를 환전하였다. 그리고 현금 외의 카드로 하나은행에서 발행하는 viva platinum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중에서 추천하는 글들이 많아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p> <p>캐나다는 1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라이기는 현지에서 가서 구매하였고 나머지 전기제품은 한국에서 파는 어댑터를 이용하였다. 겨울이어서 들고 가는 옷들의 부피가 커서 캐리어를 두 개 사용하였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캐나다 광역 밴쿠버에 위치한 Simon Fraser 대학교의 다운타운 캠퍼스의 어학당에서 공부했다. 서부에 있는 대학 순위 2등이다.
	교육 시설	다운타운 중심에 있는 건물에 위치하여 시설이 매우 좋다. 강의실은 넓고 쾌적하다. 보안팀이 건물 입구에 있어 안전하다.
	기숙사 시설	기숙사 대신에 홈스테이였다. 내가 배정받은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홈스테이 하우스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와 같은 홈스테이에 사는 일본인 친구도 같은 말을 하였다. 방에서 쥐와 벌레가 나오고, 층고, 화장실은 한 개다. 카펫에선 냄새가 나 집안 전체에 물 썩는 냄새가 난다. 집은 다운타운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학교에 가려면 환승도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같이 간 다른 학생들의 홈스테이는 양호했다. 단지 나는 운이 안좋아서 안좋은 집에 걸린 것 같다.
	편의 시설	파견대학의 편의시설에는 학생 휴게실이 있다. 휴게실에서 가져온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푸드코드가 있다. 또한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p>밴쿠버의 교통은 잘 되어있다. 스카이 트레인이라는 Metro Vancouver 전역을 잇는 도시 철도가 있다. 스카이 트레인은 3량에 한국 시내버스 정도의 폭을 갖는 매우 작은 전철이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1분에서 5분 사이여서 교통은 편리하다 느꼈다. 또한 Sea Bus 라는 노스 밴쿠버와 밴쿠버를 잇는 배(선박)이 있다. 버스와 스카이 트레인 그리고 시버스 모두 한 달에 150 캐나다 달러 정도 하는 컴패스 카드를 통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p> <p>한국과 달리 몸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로, 사람이 많이 타있는 교통수단에서는 악취가 심하다. 게다가 모든 교통수단에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 있고 심지어 섭취도 가능하여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p> <p>택시비는 비싼 편이다. 홈스테이 하우스에서 공항까지 40분 정도 운행하여 60 캐나다 달러가 나왔다. 하지만 팁을 별도로 하므로 총 67 달러를 지불했다.</p>
	식사 여건 및 비용	<p>식사는 홈스테이에서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고, 점심은 각자 사먹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배정받았던 홈스테이 하우스는 매우 가난한 집이었기에 식사 마저 부실했다. 아침과 저녁을 제공 받아 점심만 사먹으면 된다는 예상과 달리 저녁 마저 사먹어야 해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다. 사먹는 음식 물가는 한국에 2배이다. 건물 지하 푸드코트에 돼지고기 차돌 덮밥처럼 생긴 음식이 16 캐나다 달러였다. 김치찌개 정식은 20 캐나다 달러였다.</p> <p>커피는 Tim Hortons 이라는 캐나다 국민 커피집에서 짠 가격에 살 수 있었다. 팀 홀튼은 캐나다 어디에나 존재했고, 가격도 싸다. 아메리카노에 크로아상 세트를 7 캐나다 달러로 먹을 수 있다.</p>
	관광지 정보	<p>밴쿠버에는 자연 관련 관광지가 많다. Stanley Park, Granvill Island 등 섬과 숲 관련 공원들이 많다. 또한 노스 밴쿠버에는 높은 산들과 깊은 숲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을 하러 온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스키를 타러 가기도 한다.</p>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p>강의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강의가 대부분 토론 형식으로, 강의에 주제에 따라 옆 사람 혹은 반 전체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가끔 가다 발표 형식의 강의도 있다. 강의의 주제로는 뉴스 미디어, 문학, 캐나다 문화, 말하기, 리스닝 등이 있다.</p> <p>교실에서 하는 수업과 대조적으로 아카데미 필드트립이 있다. 아카데미 필드트립은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인솔 교사와 함께 밴쿠버로 관광을 나가는 것이다. 이 수업 또한 과제가 존재하며, 당연히 영어로 진행된다.</p>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위와 같다.
	강사진	강사진은 미국(=캐나다) 발음을 사용하며, 강사별로 표준 발음이 아닌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wanna, gonna 같은 것이 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방과후 수업으로 학생들과 사교 형식으로 추가 수업이 있다. 필수는 아니어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밴쿠버에 가서 만난 한국인 학생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관광을 다녔다. 밴쿠버로 떠나기 전에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현지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할 필요도 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p>프로그램 중에 캐나다 현지 생활과 홈스테이를 하면서, 밴쿠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교육을 통해 배우는 영어 외에도 현지의 생활 영어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기숙사와 다르게 주거를 위한 도시에서 현지 사람들과 생활하는 점이 홈스테이의 장점인 것 같다.</p> <p>어학당 특성상 캐나다인은 없었다. 대부분 일본인과 중국인이었다. 일본인들과 문화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었다.</p>
	프로그램 장점	<p>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홈스테이와 학교가 다운타운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집을 통학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다운타운 중심에 있는 학교는 교통이 편리하여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밴쿠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다.</p>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p>너무 좋지 않은 홈스테이를 하우스를 배정 받았다. 청결하지 않고 식사는 부실했다. 홈스테이를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p>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p>밴쿠버에 있는 식당은 기본적으로 비싸다. 게다가 팁과 세금을 별도로 내야해서 한 끼를 밖에서 먹으면 2만원 정도 든다.</p> <p>가기 전에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자주 가게 되므로, 현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체크카드는 결제가 안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식당과 쇼핑몰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렌트카를 대여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p> <p>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각각의 영어 억양이 있다. 알아듣기 힘들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3.01.02. ~ 2023.01.27
프로그램	캐나다 SFU				

--	--	--	--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권 나라에서 외국어 활용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 올라온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프로그램의 등록 및 결제는 학교에 돈을 지불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셨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와 여행자 보험은 인터넷에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기에 그것을 보며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항공권은 학교에서 알려준 날짜에 맞게 출국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카드를 주로 이용한다고 들었기에 환전은 많이 하지 않았고, 옷, 기본적인 생필품, 우산,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한 선물 등을 준비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교육 시설	학교의 건물과 강의실이 아주 깔끔하고, 보안에도 매우 철저해 보였다.	
	기숙사 시설	X	
	편의 시설	학교 건물에 강의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드코트, 슈퍼, 카페 등 다양한 곳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무엇이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가 캐나다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이 끝나고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았고. 버스, 지하철, 씨버스 어느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컴패스카드를 한달치 구매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학교 건물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어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으나, 학교 주변에도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어 푸드코트는 자주 이용하지 않았다. 가격은 캐나다 물가가 높아서 꽤 비쌌다.
	관광지 정보	캐나다의 유명 관광지가 학교에서 버스로 20-30분만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았기에 편했다. (잉글리시 베이, 그랜빌 아일랜드 등)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 Academic Field Work (일주일에 1번), - Canadian Studies, Reading Skills, Oral Skills, Listening Practice, News Media, Composition (일주일에 2번씩)
	교육 내용	위에 말한 강의 구성대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주로 캐나다의 문화, 역사, 지리 등 캐나다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강사진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인 한국식의 교육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참여형으로 진행되었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의 소통기회를 주기위해 강사진분들이 많이 노력해주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닌, Academic Field를 간다. 주로 박물관을 간 후, 체험 보고서를 쓴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학교 수업 이외에 밴쿠버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많이 다녔는데, 식비와 문화체험비가 제법 많이 들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한 달만 다녀온 것이기에, 영어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영어실력을 제외한 많은 부분들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등 한국에서는 해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장점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파악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여름은 상관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겨울방학 캐나다 프로그램은 해가 너무 빨리 저서 3시에 끝나는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되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수업의 내용이 한국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영어로 배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숙제가 제법 많은 편이기에 아주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2. - 2023.01.27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영어교육에 종사할 학생으로서 영어권 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경험을 쌓고 싶었음. 또한 현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미래 영어교육자로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지원하게 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부모님의 지원 및 본인이 부담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안내해 주신 대로 블로그를 보며 준비하니 어려움이 없었고, 항공권은 대한항공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여행사를 끼고 구매하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추후에 변동사항이 생겨 환불하고 싶을 경우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kb국민 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들었습니다. (2만원 이하)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200달러 정도만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트레블 월렛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하여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 준비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로 캐나다에서 명성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본 캠퍼스는 버나비에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캠퍼스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교육 시설	도서관과 스터디 라운지, 많은 휴게 공간이 있어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에서 생활하였음.	
	편의 시설	교내 도서관, 컴퓨터실, 카페, 푸드코트, 매점 이용이 자유로웠으며, 스터디 라운지 및 스튜던트 라운지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음.	
	기타 정보	교내 푸드 코트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퀄리티도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홈스테이 호스트 분에게 점심을 부탁하거나, 교외 식당에서 사먹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호스트 분마다 다른데 아침 식사를 점심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허락해주시는 듯 합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캐나다는 Compass 카드를 구입하면 버스, sky trai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monthly pass를 구입하고, 1 Zone 이용 시 카드 6 달러에 교통비 약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ZONE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주말에는 zone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zone을 벗어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식비는 대부분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입니다. 다운타운에 식당가가 많습니다. 학교 근처라면 GRANVILLE STREET쪽을 추천합니다.
	관광지 정보	밴쿠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빅토리아, 휘슬러, 딥 코브, 린 캐니언, 그랜빌 아일랜드, 스탠리 파크, 가능하다면 시애틀 추천(미국 비자 esta 필요)
	기타 정보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나,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ast hastings 거리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숙인도 마약에 취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거리입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listening, oral skills, composition, News Media, Canadian Studies 그리고 literature 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과목 별로 주 2회 씩 수업하며, 하루에 3 과목씩 수업합니다. 9시부터 12시40분까지 2과목을 마친 후 1시간의 점심 시간을 가지고 1시 40분부터 3시 30분 까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4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활동을 진행합니다(Academic Field work)
	교육 내용	각 수업 과목 별로 focus 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학생들과 프리토킹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강사진	Canadian Studies - Carol Condruk Composition - Sara Zadehdabbagh Listening Practice - Tim Hull News Media - Jeff Behrner Oral Skills - Veronica Vukusic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Academic Field Work 시간에는 여러 박물관에 방문하여 캐나다 문화에 대해 배웠고, 매주 월요일 방과후에는 CLUB DAY로 지원자에 한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레벨 테스트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에게 맞는 레벨을 배정 받는 것이 효과적인 연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테스트 구성은 단어, 문법, 듣기, 독해 등의 항문으로 80문제 정도입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평일에는 방과 후에 다운타운 중심으로 관광 및 쇼핑을 하였고, 주말에는 COMPASS CARD 가 ZONE 제약이 없기 때문에 멀리 위치한 관광지 까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정보	휘슬러와 시애틀, 빅토리아의 경우에는 밴쿠버에서 많이 멀기 때문에 따로 셔틀버스나 페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저 같은 경우 전공이 영어와 교육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2언어 학습 이라는 과목에서 이론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 영어로 이야기 하며 여러 하부 종류의 영어학습을 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업 분위기 상 같은 국적의 사람끼리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1달은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FU 프로그램 구성이 2달이 1 TERM인데 4주 프로그램을 할 경우 정규 프로그램과 상이하여 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8주 학생과 계속해서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주 프로그램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4주 학생들끼리만 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몇몇 상점들은 현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해외 결제가 가능한 체크 카드나 신용카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활동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현금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시간이 충분하다면 연수 기간보다 일찍 출발 하시거나 연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가나 주변 국가에서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오시길 추천 드립니다.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수업 이외에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2.1.2.~2022.1.27
프로그램	캐나다 어학연수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계좌 이체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ETA, 마이여행, 인터파크 예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 하나은행 , 개인준비물, 공부에 필요한 것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FU	
	교육 시설	SFU 밴쿠버 캠퍼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	
	편의 시설	학생식당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한달 사용 가능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학교 주변 상점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관광지 정보	밴쿠버 전망대, 도서관 등등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말하기 듣기 쓰기
	교육 내용	영어
	강사진	원어민강사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수업 외에 시험과 퀴즈가 있었습니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밴프 및 빅토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시설이 깨끗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더욱 다양한 인종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가시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가세요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3.01.02~2023.01.27
프로그램	동계단기어학연수				

성명			
소속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프로그램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동계단기어학연수프로그램 선발이후 카카오톡 단톡방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결제 방법 및 최종등록금을 안내받아 결제하였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캐나다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체류시 ETA를 승인받으면 되었고, 항공권은 학교 일정에 맞춰 단톡방에서 안내를 받아 왕복 직항권을 끊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전체에 맞춰 개인적으로 들었으며, Simon Fraser University의 경우 학교보험이 따로 있어, 학교 보험 또한 기간에 맞춰 들었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온라인 뱅킹으로 환전신청 후 공항에 가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100달러는 받지 않는 곳이 여러 있어, 50달러 권 아래로 환전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드결제가 잘되어있으므로 많은 현금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ELC센터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해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다운타운 주변으로 볼거리가 많아 좋았습니다.	
	교육 시설	학교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으며, 도서관,스튜던트라운지 이용 등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학교 내 공부 및 휴식공간이 잘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	캐나다에서는 기숙사가 없고 주로 홈스테이를 하게됩니다. 홈스테이는 운에 따라 좋은 곳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설문지 작성을 통해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담당자분께 홈스테이 변경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편의 시설	카페 및 매점, 푸드코트가 대학센터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였으며, 스텐던트 라운지에서 전자레인지,전기포트,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학교 ELC센터가 주관하는 외부활동프로그램들이 날마다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신청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p>밴쿠버는 교통카드로 'compass card'를 사용하며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한달을 머물기 때문에 먼쓸리패쓰권을 끊어 사용하시면 됩니다.</p> <p>먼쓸리패쓰권은 한달동안 버스 및 지하철,씨버스등 여러 교통편을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존'이라는 개념이 있어 1존/2존/3존으로 나누어지며 다른 존으로 이동시 추가요금이 붙거나, 처음 먼쓸리패쓰권을 끊을 때 존마다 이용권 금액이 다르므로, 홈스테이가 어느 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이용권을 선택하여 끊으시면 됩니다.</p> <p>1존은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존 먼쓸리패쓰카드 경우에는 약 11만원 정도 했습니다.</p>
	식사 여건 및 비용	<p>밴쿠버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12%가 붙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서버분께 팁을 기본 15% ~18%을 지불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일 나가서 사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을 하여 스튜던트라운지에서 먹거나, 간단한 빵이나 과일을 홈스테이에서 가져와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p>
	관광지 정보	<p>밴쿠버는 겨울에는 오후 4시반이면 해가지므로 많은 활동을 하기엔 어렵지만, 학교 주변으로 다양한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잘 마련되어있고,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학교끝나고 관광지 하나씩을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버스 30분 이내로</p> <p>그랜빌아일랜드마켓,킷실라노비치,스탠리파크,잉글리쉬베이비치,퀸엘리자베스공원, 캐필라노 현수교등이 위치하여있으며, 시간적 활용을 할 수 있는 주말에는 휘슬러,빅토리아섬등 거리가 먼 관광지를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기타 정보	<p>카페를 가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거나 마켓에서 비닐봉투를 받을 때 캐나다는 25센트(250원)추가 비용이 있으므로 물병과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강의는 Composition/Listening/Canadian studies/Literature/News media/Academic Field Work/Oral skills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마다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다릅니다.
	교육 내용	Composition/Listening/Canadian studies/Literature/News media/Academic Field Work/Oral skills 을 배우게 되며 생각하면서 영어로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강사진	ELC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동양인,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높으시고, 이에 맞춰 강의해주셔서 강의 수준은 뛰어납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 ELC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외부활동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타운투어나 각종 관광지 정보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각 과목마다 성적을 내기 위한 과제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후한 점수를 줍니다.
	기타 정보	- 오티날 시험을 통해 반편성을 합니다. - 출석률이 85%를 넘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에 한번에 출석 15%이므로 출석률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교통비는 처음 먼슬리패스 카드 구매 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으므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ELC 센터 프로그램 신청시 무료인 것도 있지만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ELC 센터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스킬등을 배울 수 있으므로 듣기 능력과 영어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ELC센터로 오는 외국학생들 또한 모두 영어를 배우러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영어말하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우리나라 교육방식과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향상시키고 영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나라 학생들과 친해지고 영어로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영어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밴쿠버는 코로나19이후 노숙자가 급격히 많아져서, 노숙자가 많이 모인 특정구역(E hasting st - Main st)은 마약 및 여러 사건으로 위험하므로 가지 않아야합니다.
	추후 참가자들 을 위한 조언	캐나다 SFU 동계단기어학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외국살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했었는데 가서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 정말 잊지 못하는 한달이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가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많고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말고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많은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